

세세생생 보현행지의 길을 가리라 (상)

권혁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이 진리처이니라.’ (임제 선사)

위 계승은 내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조사스님의 말씀이자,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불자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현세의 많은 이들이 형상(명예, 권력, 돈, 여자 등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각각의 축복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한 생을 끝낸다. 이는 마치 자기 자동차의 열쇠를 차 안에서 두고 바깥에서 차 문을 잠근 꼴이다.

나는 모태 신앙으로 불교를 만났다. 불심이 깊었던 나의 어머니는 나의 고향인 강릉시내에서 약 이십여 리 떨어진 법왕사에 백일 지식을 드리고 나를 입태하셨다. 6·25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시월 중순 어느 날, 남하하는 북한 인민군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군 비행기가 교량을 끊기 위한 폭격을 감행하던 한 날이었다.

나는 파란이 난무하던 그때 난산 끝에 태어났다고 한다. 어머니를 비롯한 친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의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시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날의 사건을 뇌리에서 지우지 않고 있다.

나의 생각을 가로 질러 건너편에는 오대산 월정사의 포교당인 관음사가 있었다. 나는 자라면서 그 절의 부설 유치원에 다녔으며, 절마당은 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선우매들의 운동장이었다.

그곳은 만해선사께서 공부하셨던 곳이기도 하다. 법당의 불상과 관음보살상은 내 어린시절의 신비한 대상 그 자체였고, 그 자태롭고 친근한 모습은 내 가슴속에 이미 깊이 각인돼 버렸다. 관음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모든 강릉인들이 평안을 기원드

렸던 귀의처이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면 몸과 마음을 맡겼던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시대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물난리가 시대를 휩쓸 때에도 그곳은 묘하게도 침범되지 않았던 성지였다. 몇 년 전 사상초유의 태풍 ‘루사’와 ‘매미’가 연이어 강릉지역을 강타했을 때에도 그곳만은 안전했던 것을 보면 그야말로 수월도량임을 알 것 같다.

나는 관음사를 마음에 담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연스레 불교학생회에 입문하게 됐다. <반야심경>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도스님께 법문을 듣기도 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내게 매우 흥미로웠다. 여러 학교 교수들과 함께 활동하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당시 불교학생회 회장이었던 전보삼군이 생각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학교를 다닌 그는 현재 신구대학교 교수이자 만해기념관장직을 맡고 있다. 오래전 사재를 털어 남한산성 한 편에 만해기념관을 짓고 민족정기와 만해사상을 천하에 선양하고 있는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나와 가장 뜻이 맞고 같은 길을 가는 동반으로서의 우애를 다졌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많은 주변의 인연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도시환경에 몰들면서 불교의 답을 찾게 됐다. 캠퍼스에서 사귀게 된 팔도 사나이들과 만나면서 세간유락에 빠지게 됐고 잠시 부처님을 여의었던 것이다. 그러다 학기 초부터 사귀게 된 과 동기였던 이전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4년간 연애 끝에 졸업 후 바로 결혼했다. 12년 동안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했으나, 그는 1984년 4월 정전병력같은 암선고를 받았

다. 그리고 2년여를 투병하다 86년 4월 어느 날 아내의 사바의 인연을 훌훌히 털고 이 땅을 떠났다. 당시 내 나이 서른 일곱. 직장에서 한창 인정받고 조직의 중심에 서서 이제 좀 재미나게 살만할 때가 됐을 때 아내의 무정하게도 나와 세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세상인연을 달리 했다. 나와 아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큰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딸아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 녀석이 겨우 다섯 살이었으니, 4월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도 잔인한 달이었던 것이다. 꿈인지 생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역장

이 무너져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견딜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는 절을 찾게 됐다. 암선고를 받은 아내와 주위의 안내로 잠실에 있는 불광사·불광법회에 처음으로 발을 붙이게 됐다. 투병생활 2년 동안 병원 치료는 물론 기도와 정진을 열심히 했으나, 전생업과 시절인연 때문이었는지 이생에서의 고통과 번뇌를 쉬는 쪽으로 마음을 놓고야 말았다. 남게 된 나는 황망한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나 아내의 명복이나마 열심히 빌어야 하는 것이 뜻난 나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건강으로 아내를 따라 절을 찾았던 사이비 불자의 너울을 벗고, 그날 이후부터 지심참회하며 기도도 공부도 열심히 했다.

먼저의 아내를 떠나 보낸 후 약 1년여 동안은 그야말로 나에게서는 지옥이었다. 어린

자식 셋을 거느리고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슬프고 막막했다. 강릉의 부모님께서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던 이모님을 서울로 급파하셨다. 의식주는 이모님의 수고로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보건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에 아이들의 숙제와 준비물을 내가 직접 챙겨줬고, 아이들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찾아가지도 않던 담임선생님을 수시로 만나기도 했다. 녀석들의 ‘엄마가 없는 목마름’을 옛날 양반이신 이모님은 돈으로 때우셨다. 아이들은 찬 빙과류를 매일 먹어대다가 허구헌날 감기를 앓아 병원

아내의 암 선고에 충격과 눈물의 나날 사별후 어린 자식들 키우며 기도 정진 아이들 생각에 직장 동료와 재혼 결심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오.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 ♣ **산속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잘 좋은 인연입니다.
- ♣ **산속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속 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이사님의 지문을 받습니다.
- ♣ **산속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속 조청

웃이오르지않는 **산속 참웃 조청** 1.2kg

아열,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속 기침량조청 (품절)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산속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시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속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공사** 054)372-3166
- 입금 처: 동행 727077-52-056761(현승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 조청원**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출판기념법회》

- 장소: 서울 영등포구 탑사(종서)
- 날짜: 2005년 7월 14일
- 시간: 오전 10시 30분
- 전화: 02)2635-2611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먼 바다에서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자각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여러석음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신광사 홈페이지: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법보시용은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유니버설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공문서업무)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0명, 여0명, 사원 - 남0명, 여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윤기치유 명상수련원

기치유?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침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요법입니다. 이 치유법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삼차신경통, 관절화, 통풍, 암, 류마티스, 당뇨 등 난치, 불치병 외에도 수술 직후의 빠른 회복이나 유아, 애완 동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련지도: **윤한홍**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론 논설위원

기치유사 수련생 모집

교육 기간
일반반: 8월 11일(목) 오전 10:30~12:30(12주과정)
8월 12일(금) 오후 7:00~9:10
속성반: 8월 20일 오후 2:30~5:30(한달 4일과정)

교육 내용: 기초이론 및 명상법
기를 강화하는 수련
치유기 개발하기 위한 특수명상
자신 기치유 실습, 타인 기치유 실습

참고서적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윤한홍 저음) 문의하세요

WWW.gi-clinic.pe.kr - 에너지힐링.kr

후원 **한국기치유 연구회** 02-3482-5032 Energy Healing Center